

출판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출판인들의 호소

나라와 사회가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 출판인들은 이 시대적 난국의 근원적인 극복이 책의 지혜와 힘을 통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한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고 창조적인 사상과 이론,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책을 만들어내고 널리 읽히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국가 사회를 일으켜세우고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토대이자 원동력입니다.

책이 만들어내는 빛나는 정신과 사상, 책이 분출해내는 위대한 에너지야말로 나라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책 만드는 일을 직업적 소명으로 안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책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출판문화의 구체적 역량과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우리 국가사회가 혹독하게 체험하고 있는 작금의 IMF 사태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출판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 땅의 출판문화와 출판계를 살려내기 위한 호소를 새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책의 문화가 활발하게 꽃피지 않는 국가와 민족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번영을 누리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되는 21세기에 책의 문화 없이 국가와 사회와 민족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못하고 또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코 책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자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확실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①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출판문화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일을 국정의 주요정책으로 삼아줄 것을 우리 출판인들은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출판문화는 다른 문화의 위에 서는 상위개념입니다.

출판문화 없이 경제도 과학도 불가능합니다. 출판문화 없이 문화와 교육은 물론이고 정치 발전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자 문화와 예술의 시대이며 경제와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책을 만들고 읽는 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출판문화의 발전 없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진정한 세계화는 물론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출판문화 없이 세계 속에 사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역량을 결코 키우지 못합니다.

②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문명적 대전환기에 국정을 맡을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우리 국가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화인프라로서 출판문화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책 만드는 사회, 책 읽는 사회가 가능하게 조건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국력은 지력이고 지력은 국가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자원이자 전략입니다. 책 만들고 책 읽는 행위는 나라와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지력과 자원과 전략을 창출해냅니다. 오늘의 IMF 사태도 우리 사회의 지적 자원의 빈곤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출판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출판문화진흥책을 직접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출판문화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일으켜세워야 하는 문화인프라의 기본틀이기 때문입니다.

③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출판문화는 이제 구호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라와 사회를 지탱하는 문화적 자원으로서 그리고 그 실천적 전략으로서 출판문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창조적이고 질 높은 출판문화와 독서문화를 견인해내는 정책입안자와 정책 집행자를 배치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의 문화부장관은 이 문명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지성과 안목, 문화정책을 창안해내고 집행해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맡아야 합니다. 문화와는 거리가 먼 반지성적인 인사가 다시는 문화부장관으로 부임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문화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 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각별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 새 대통령은 문화부장관으로 책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을 사랑하고 읽는 문화인을 임명해주기를 기대합니다.

④ IMF사태는 지금 우리 출판계의 총체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들이 매일같이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음할인이 막히고 있습니다. 할인이 되더라도 엄청난 이자부담에 출판사와 서점들이 벼랑에 서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종이를 비롯한 자재난으로 신간을 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부터 신간의 생산량이 예년의 2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그것도 발발부수를 50%씩 낮추고 있습니다. 학술

지·계간지들의 간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출판계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들은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출판계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은 이제 고통의 수준을 넘어 출판계의 전반적 왜화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술활동은 물론이고 대학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도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우리의 출판문화가 무너져내리게 이 이상 방치해두어서는 안됩니다.

출판계와 서점계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면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출판 서점계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출판문화를 살리는 일은 곧 이 사회의 정신 교육 사상 학술 과학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면, 500억원이라는 자금은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참으로 적지만 대단한 효과를 거두는 결실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⑤ 출판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의 다른 분야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반드시 키워내야 할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의 전형입니다.

고급한 출판문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 정부는 출판기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 IMF 사태가 극복되면 적어도 1천억원의 출판기금이 마련되어 학술 과학출판을 비롯한 고급 출판산업을 육성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고급출판은 국가사회를 영위해나가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공공적 자원입니다. 쌀과 보리가 식량자원인듯이 고급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내는 출판은 국가사회의 정신과 사상을 영위하는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⑥ 우리는 출판계와 서점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거품을 거둬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들 및 도매서점들의 난립과 서점규모와 구조의 낙후성도 알고 있습니다. 출판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를 조정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출판인들은 서점인들과 연대하여 출판유통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가동하

고자 합니다. 출판유통발전위원회는 출판문화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 것이며 왜곡된 구조를 조정하는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출판계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의식과 행동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또 시도하지 않으면 이 무한경쟁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IMF사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신과 문화,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천박한 경제주의와 왜곡된 물질주의, 반문화적 정치주의가 인간적 삶의 가치와 존엄을 허물고 있음을 통감하게 합니다. IMF 체험을 통해 우리는 개인과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개인과 나라의 큰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확실한 대안을 책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 출판인들은 온 국민들과 더불어 확인합니다. 이 땅의 소망스런 책의 문화를 일으켜세우는 주체로서 우리 출판인들은 우리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할 것을 오늘 다시 다짐합니다.

1998년 2월 4일

민음사 박명호	명진출판사 안소연
한길사 김언호	창작과비평사 이시영
다섯수레 김태진	보리출판사 차광주
문예출판사 전병석	길벗출판사 이종원
다락원 정효섭	새로운사람들 이재욱
범우사 윤형두	자유지성사 김종운
법문사 배효선	이목 김상남
현암사 조근태	장락출판사 홍정현
성안당 이종춘	사계절 김영중
기문당 강해작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미진사 김현표	언어문화 이동명
까치글방 박종만	문학동네 강태형
오늘 이종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회평론 윤철호	살림출판사 심만수
문이당 임성규	등지출판사 황근식
홍익출판사 이승용	세계사 최선호
이레 고 석	